



YTN 표완수 사장 취임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자!”

뉴스전문채널 YTN은 5월 23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새 대표 이사로 표완수(56) 사장을 선임했다.

표완수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YTN이 정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개혁작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표 사장은 “아무리 좋고 훌륭한 물건이나 제도도 세월이 흘러 먼지와 관행의 각질이 쌓이면 못쓰는 물건이 된다”며 “세월이 흘러 비틀러진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사장은 또 “인사혁신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말



했다. 표 사장은 특히 “흑자 경영을 달성하는데 경영의 최우선을 두고 수입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노력은 물론, 매체력 강화와 수입원 다변화,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YTN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완수 사장은 “섹터가 활개치는 조직에는 발전이 없다”며 “회사 내에 분과주의를 타파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 조직다운 면모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표완수 YTN 사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74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80년 강제 해직된 뒤 89년 언론계에 복귀해 시사저널 국제부장, 경향신문 국제부장, 경인방송 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장취임사 2면)

◀ 표완수 사장 취임식

방미 수행단과 함께 한 YTN 위성방송



전세계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YTN 실시간 위성방송이 갈수록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미 때도 YTN 뉴스가 방미 수행단에게 국내 소식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YTN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5.11~16) 중 북미지역 위성방송 대행사인 아이스카이컴(iSkyCom)과 현지 공관측의 협조를 얻어 뉴욕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의 대통령 숙소와 프레스룸 등에 YTN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방미 수행단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국내와 똑같이 YTN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YTN은 지난 3월부터 전세계 실시간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두달 연속 ‘이달의기자상’ 수상 진 장관 아들 국적문제 보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 국적 문제에 대한 보도 등으로 YTN이 두달 연속 ‘이달의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지난 5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51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갖고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처음으로 시도한 YTN 경제부의 문준선(경제부장), 류재복, 장민수 기자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다. YTN은 지난 4월에도 최태원 SK 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보도와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CCTV 화면 입수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바 있다.

“뉴스 콘텐츠와 포털의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

24시간 뉴스 콘텐츠와 포털업체의 첨단기술이 만나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서비스 모델을 선보인다.

뉴스전문채널인 YTN과 인터넷 포털업체 NHN은 지난 4월 29일 YTN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유무선 인터넷 사업을 전개할 법인 ‘DIGITAL YTN’(이하 DY)을 설립했다. 양사는 지난 1월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석달여에 걸친 실무협상 끝에 이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따라 YTN은 5월 26일부터 사내 인터넷 관련 인원과 업무를 DY에 모두 일임했다. YTN의 콘텐츠 제작역량과 NHN의 기술력의 결합을 토대로 탄생한 DY는 YTN의 24시간 실시

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고부가가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해 다양한 플랫폼에 제공하는 신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등 명실공히 ‘뉴스 신디케이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DY는 YTN의 홈페이지(www.ytn.co.kr) 운영권 및 유무선 사업권을 갖되 뉴스 편집권은 여전히 YTN에 귀속시킴으로써 뉴스 콘텐츠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YTN과 NHN은 다각적인 디지털 사업 영역에서 DY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월호 HEAD LINE

- 12 | ▶ 사장 취임사 · 포토뉴스
- 13 | ▶ 대통령 방미 취재기- “여기가 한국같네”
▶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인가, 편의주의인가?
- 14 | ▶ 개운치 않은 ‘보물찾기’
▶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자!
- 15 | ▶ 4주 단기속성반 미국알기- “Hello Dr. Evil!”
- 16 | ▶ ‘벽안의 사원’ 도널 - 저를 불러 주세요
- 17 | ▶ 프로그램 탐방 - 백지연의 정보특종
- 18 | ▶ 프로그램 탐방- 낮 2시 ‘뉴스의 현장’

사장 취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면접도 치르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하나의 민주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과정!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정신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바로 그런 시대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정신의 현실적 접합 점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YTN도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일시적인 혼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정착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위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바뀌리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어온 우여곡절을 안정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데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데, 일천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력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일은 경영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책임은 사장이 일차적으로 지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회사 성장의 원동력은 여러분입니다. YTN의 모든 힘이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하나의 화두는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상화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물건이나 제도도 세월이 흘러 먼지와 관행의 각질이 쌓이면 못쓰는 물건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비틀려진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YTN이 정상적으로, 활력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걸쳐 개혁 작업을 단행하겠습니다.

거창하게 민주화와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 심정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 못지않은 심정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도 지난 2년 동안 2001, 2002년 동안과 같이 회사를 경영하면

YTN은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숨을 돌리고 말고 할 겨를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화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수입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체력 강화와 수입원 다변화, 그리고 방송환경 전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YTN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사혁신도 단행하겠습니다. 회사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인사혁신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 분과주의를 타파하겠습니다. 섹터즘이 활개치는 조직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이 제대로 서야 조직은 조직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밖에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서로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포토뉴스

신입사원 토론전형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토론전형 사회 현안을 놓고 3~6명 수험생이 한조를 이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태국 네이션언론그룹 태프차이 논설위원 방문



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네이션 언론 그룹(Nation Multimedia Group)'의 태프차이 새 용 논설위원이 5월 27일 YTN을 방문해 김관상 보도국장을 면담하고, 양시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국 '네이션 언론 그룹'은 TV와 라디오, 영자지 신문, 현지언어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 기업이다.

디지털 YTN



5월 26일 역삼동 스타타워 B/D에 자리잡은 디지털 YTN, YTN 홈페이지·메일센터 운용 등 온라인 사업을 전담한다.

YTN 특별기획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독일에서 방영, 프랑스에선 가을에 상영예정



◀ 일본중군위안부 박영심(북한에 생존) 할머니가 사진속에서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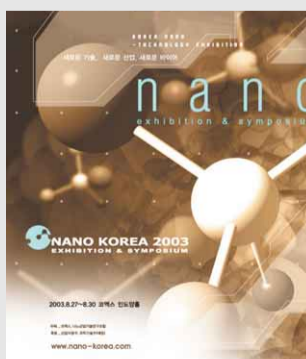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YTN 기획 특집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영어판 “Give Me Back My Youth”, 제작 :한원삼 기자)가 독일에서 오는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영된다. 이 작품은 일본정부가 일제침략과 강제성을 은폐하고,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미화 하려는 신(新) 왜국주의 및 독선태도에 따른 왜곡된 사실을 밝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미국과 일본에서 찾아 공개했다. 이제껏 사진 한 장 속에 임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알려진 박영심(현재 북한생존)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과 당시 박 할머니를 잘 알고 있는 일본군 출신의 하이미미사노리가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폭로 함으로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 해방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손을 맞잡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동기소장을 합의한 역사적 사실과 전쟁의 비극을 통해 인생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 피해자 여성들이 마지막 죽음까지 일본정부로부터 도덕적·법적책임을 물어 꽃다운 청춘으로부터 피지도 못한 채 주름투성이가 된 한 맺힌 인생의 아픔과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정 원하던 삶을 살아 갈려고 하는 모습을 소개한 작품으로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의 전후를 비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지난 2001년도 미국 하버드, 예일 등 6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상영됐고 오는 가을에는 프랑스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 ▶ 상영날짜
- 6월16일 : 베를린 자유대학
 - 6월17일 : 동백림 영화관
 - 6월30일 : 독일 한국문화원

나노코리아 2003 조직위원회 간담회



국내외 나노기술 정보교류 및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NT(나노 테크놀로지) 역량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개최되는 나노코리아 2003의 조직위원회 간담회가 6월 3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국회룸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나노코리아 2003”은 산업전시회와 기술심포지움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전시회는 코엑스 주관 하에 2003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심포지움은 YTN 주관 하에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조직위원회 간담회에는 이회국 위원장(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이사장/LG전자 사장), 국양 위원장(서울대 교수), 표원수 위원(YTN 사장), 오영호 위원(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김정구 위원(서울대 교수) 등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산,학,연 대표자급 4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점검의 기회를 가졌다.

▶ 대통령 방미 취재기



“백악관에 YTN이 나오네!”

강성웅 (정치부)



강성웅 기자(왼쪽)와 원영빈 촬영기자

“저, YTN 기자시죠?” 워싱턴에 도착해 맞은 첫날 저녁. 아직 현지의 지형지물도 제대로 파악 못한 나를 누군가 불렀다. 낮에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오는 길안내 받았던 한국 대사관의 공보관이었다. 그 때 백악관 영빈관에 YTN이 나오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해줬던 터였다. 그곳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머물고 있었다.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백악관 영빈관에 YTN이 잘 나온답니다.” 혹시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더 물어봤다. “누가 그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대답을 하는 공보관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청와대 경호실 통신부장이 대통령께 들었습니다. YTN 정말 대단합니다.”

YTN도 대단하지만 현지 케이블 방송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11테러 사건 이후 백악관은 군사령부 건물처럼 느껴지곤 했다. 경비와 경호가 그만큼 삼엄해졌다는 얘기가. ‘블레이 하우스’로 불리는 영빈관은 백악관 본관에서 30미터 가량 떨어진 건물이다. 그곳에다 한인 방송에서 YTN을 위해 케이블을 끌어왔거나 위성을 설치한 것이다. 누군지 몰라도 ‘고생 꽤나 했겠구나’ 싶었다.

그럭저럭 2박3일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우리가 쓰는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이미 YTN이 켜져 있었다. 기자실이 꾸며질 때 이미 YTN 본사에서 미리 조치를 해둔 것이다. 마침 경기도 유사종교집단 사망사건을 알리는 긴급 자막뉴스가 나가고 있었다. 놀리는 사람들은 프레스센터에 도착한 동료기자들이었다.

“와, YTN을 보니까 여기가 한국 같네”

“야! 000 얼굴 잘~ 나온다.”

여기저기서 YTN에 간간이 비치는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수근대기 시작했다. 정말 한국 기자실로 돌아온 기

분이었다. 프레스센터에는 아예 현지 한인 케이블 방송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KBS도 나오지만 그건 녹화에요, 녹화. 그러니까 뉴스는 다들 YTN을 봐요.”

그리고 그 직원은 YTN을 위해 한 가지를 가르쳐줬다.

“YTN 방송에 나오는 시각고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거 정말 좋아들 해요. 그걸 보면서 생활하면 아주 편해요. 한국이 몇 시 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YTN이 하루 종일 시각고지를 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 우리가 잇고 살지만, 같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이었다.

해외에 사는 한국인들이 매일 YTN의 ‘뉴스’와 ‘시계’를 보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 지리적으로는 흩어져 있어도 모두가 ‘언어와 시간’의 공동체에서 살게 될 것 같다.

YTN은 어느새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혈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잘하면 전세계 한인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YTN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한인들이 지혜와 힘을 합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되어서 다음 세대부터라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리 좀 안나왔으면 정말 시원하겠다. ‘굴욕외교’니 ‘사대외교’니 하는 그 낯뜨거운 얘기 말이다.

▶ 전문가 특별기고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익명인가, 편의주의인가?



강미은 교수
(숙대 언론정보학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 어디에서 지갑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던 그는 거리에 서있는 가로등 근처에서 지갑을 열심히 찾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광경을 보고 그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다.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행인이 “어디서 지갑을 잃었는데요?” 하고 묻자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왔다. 어디서 지갑을 잃었는지 모르면서 왜 가로등 밑에서 지갑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로등 밑은 불빛이 환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보도 자료나 기자 회견 등 입수하기 쉬운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언론의 보도 관행을 꼬집는 우화다. 언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평균적인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사가 좋은 기사이다. 너무 전문화된 보도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기사라면 그리 좋은 보도가 아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를 상대로 기사를 쓰는 기자는 전문기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도 한다. 기자가 전문가로 오랜 경력을 쌓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실제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다.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인터뷰를 많이 한다. 기사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의 ‘인용’을 따서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에 인용을 실는 것은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다. 우선은 전문가와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짧게 기사에 인용 형식으로 실는 것이거나 비교적 손쉬운 취재 방식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게 되면 이야기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있다.

또한, 인용을 실는 것은 기사의 객관성을 높여 보이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사의 내용이 기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기사의 객관성과 뉴스 가치도 올라간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기사일수록 전문가의 ‘인용’은 꼭 필요하다. 기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릴 때 기자 개인의 사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여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장’이 있는 기사일수록 기사는 적절한 ‘인용’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쇼팽’을 한다. 이렇다 보니 간혹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사의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인용을 찾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가설’에 맞는 말을 해줄 전문가를 찾아서 인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사의 ‘가설’은 ‘자기충족적 예언’이 되어서 맞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기사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기사 자체가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저 기사가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양쪽을 다 커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해서,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반드시 ‘양쪽’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기사에서 ‘양쪽’의 의견을 인용해서 실는 것은 손쉽게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시도이다. 한 연구를 보면 미국 신문의 경우, 한 기사에 평균적으로 7.6명의 인용이 실리는 반면, 우리 신문은 1.4명의 인용이 실린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양쪽’의

의견도 다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뉴스의 내용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긴밀한 관련도를 지니는가에 대한 ‘적합성’이 한 축이고, 언론인들이 정보원에게서 얼마나 쉽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입수 가능성’이 다른 한 축이다. 많은 정치 관련 기사의 경우,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독자들에게 대한 ‘적합성’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나 하는 우려를 낳아 왔다. 우리 신문과 방송에서는 애매한 정보원이 익명으로 잘 등장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익명의 인용을 통해서 은근히 기사의 신뢰성만 높이는 기법이다.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유비통신’일 수도 있고, 정부가 정책입안을 앞두고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쓰는 ‘언론에 흘리기 작전’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런 경우 기사의 보도가 부정확할 경우에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점이다. 반드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경우라면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이런 익명의 정보원을 기사에 쓰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굳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익명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도 “한 의원은... 라고 기대했다”는 식의 인용을 해야 할까? 기자와 해당 의원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독자들에게 대한 보도 자체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인용 방식이다. 익명의 정보원을 남발하는 기사의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한 조세전문가는...” “정부 당국자는...” 인용이 기사의 객관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를 지니고 책임질 수 있는 정보원의 실체를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달의 기자상 - 수상후기

개운치 않은 '보물찾기'



류재복 (경제부)

다. 보물을 찾는 방법은 자유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찾아도 되고 장비를 동원해도 된다. 누구든 찾지만 하면 게임은 끝난다. 새 정권 출범후 임용된 30명 가까운 장관과 장관급 비서

넓디넓은 운동장에 몰래 묻어놓은 보물을 찾는 형국입니다. 몇 개를 묻었는지, 또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한건 아니다. 다만 있을 거라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

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강점이 많은 면면에 수차례 검증 을 거쳤다는 정부의 자신감까지 이들의 흠결을 잡아내는 작업은 운동장에 꼭꼭 숨겨놓은 보물찾기 작업만큼 어려운 시작이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이공계 학생이면 누구나 탐낼 만한 최고의 학교에 연구소 근무. 국내 전자업체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스타 CEO 출신... 사람을 주눅들게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런 이력은 오히려 세상 뒤집 어보기에 익숙한 기자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도 부족 함이 없었다.

'진 장관 장남의 병역기피와 이중국적 의혹' 기사는 이런 보물찾기 작업 끝에 발굴됐다. 대학 노트 한권쯤 되는 장관 들의 이력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진 장관이 미국 생활 중 에 장남을 낳았고 장남의 병역과 국적에 문제가 있을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곧바로 다각도의 확인작업을 거쳐 의혹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진 장관 삼성전자 사장 재직시 공정위 조사방해 의혹' 기사는 후배 장민수 기자가 내부 문건을 입수한 뒤 이를 분석해 보도했다. 진 장관 관련 기사가 보도된 뒤 청와대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뜨거운 사회적 논란이 시작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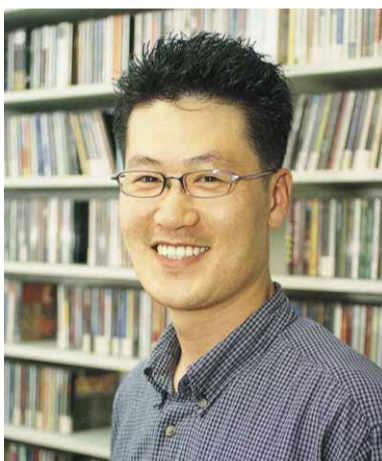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후보가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병역과 국적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번에도 '용서' 보다는 '징벌' 을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진장관은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보도로 큰 상을 받기는 했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용서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 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물을 찾는 동안이나, 찾은 후에도 웬지 소모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았기 때문 일까?

SB제작기 - 색을 찾아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자!



김신영 (편성운영부)

내고 모방 심리를 자극해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모방 심리의 이면에는 색깔이라는 소스가 있다. 색은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존재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시각적 효과는 즐거움과 볼 쾌감을 동시에 전달한다. TV도 마찬가지다. 때깔이 좋은 만큼 시청자가 즐기는 권리는 한층 더 높아진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 방송사와 각종 매체들은 자기들만의 색을 찾는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YTN도 자기만의 색을 찾아야 할 때다.

지난 봄 개편 SB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컨셉 중 하나는 색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같이 제작을 하는 그래픽팀과 시청자의 눈을 잡을 수 있는 색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생각처럼 "이거다" 하는 색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일단 매시간 마다 노출되는 뉴스 데스크 뒤로 보이는 푸른색을 피해서 제작을하기로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YTN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푸른색은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반면 안정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서 YTN의 푸른색을 유지하면서 적당하고 과감(?)하게 강한 색을 위주로 다양하게 써 보기로 했다. SB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붉은색과 갈색 등으로 포장을 했다. 방송이 나간 후 '너무 튀다', '신선하다', '좋다', '이런 색을 써 보면 어떨까.'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또 하나의 컨셉은 지난 3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전 세계에 실시간 위성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뉴스네트워크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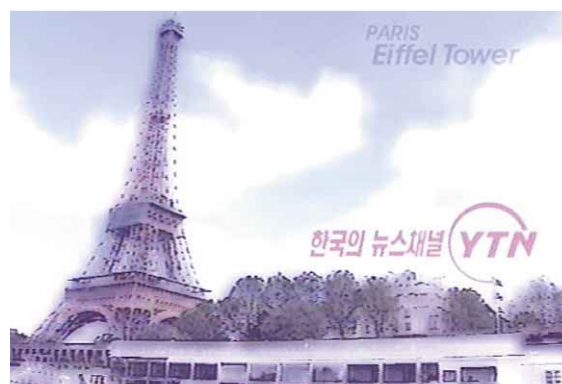
'글로벌 뉴스네트워크' 라는 문구를 최대한 활용해 시청자들에게 YTN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줌으로써 보도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이라크전쟁을 통해 많이 증명되었다. 여기에서도 전쟁에 관한 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두고 나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색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청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피다' 라는 개념을 떨쳐버리는게 중요했다.

지금까지 많은 ID와 SB들을 제작해 왔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 질 때도 많다. 채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SB는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홍보이며 광고다. 많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YTN을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최근 들어 광고 판도를 보면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가 눈에 많이 띈다. 왜 그럴까? 그만큼 한 회사의 이미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YTN은 24시간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방송이다. 그렇기에 지직 또한 많다. 개편 이후 다양한 포맷으로 시작

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 중 뉴스퍼레이드를 가장 칭찬하고 싶다.

독특한 뉴스 진행도 좋지만 무엇보다 프로그램 속에 시청자를 위한 흔적과 정성이 많이 녹아 있는 BRIDGE가 다양하고 신선해졌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만 보더라도 뉴스 퍼레이드에 관한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제작자의 맘이 시청자의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YTN의 색은 젊다. 시청자를 즐겁게 해주자.



연수후기 - 4주 단기속성반 미국알기

“Hello Dr. Evil!”

김 호 성 차장대우(앵커팀)



미 국무부에서 필자(왼쪽에서 세번째)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미 국무부초청 4주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왔다. 크게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해당기관 방문과, 관련인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하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른 하나는 9·11 이후 미국의 대 테러 대책.

돌아와 그날그날 적은 현지에서의 기록을 정리해보니까 얼추 A4 용지 50장이 넘는다. 사보팀의 주문은 A4 한장이 다. 회사에서의 물이 물이니만큼 앵커멘트만 하는 수밖에... (현지에서의 인터뷰는 OFF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백악관 - 'you can't hug the child with nuclear arms'

행색이 남루한 여인네가 'NO WAR FOR OIL'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 옆에는 머리가 푸멍처럼 열린 부시의 얼굴이 있고 'Empty warhead found in white house' 라고 쓰여져 있다. 히틀러 얼굴을 부시로 바꿔놓고 'Hail Bush!' 라고 써놓은 피켓도 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그려놓은 포스터엔 'you can't hug the child with nuclear arms' 라고 쓰여져 있다. '평화'라는 한글 단어도 눈에 들어온다. 관광객인 듯 싶은 젊은 녀석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온다. '뭐가 문제냐? 당신도 미국인 아니냐, 이번 전쟁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하면서 락비공을 들었다 놔다 한다. 주변 사람들도 대개 여인보다는 젊은애를 옹호하는 듯한 표

정들이다. 이리다가 부시 재선되겠다!

국무부 - "talking is better than not talking"

북핵문제는 10년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AFW(Agreed Frame work)실행하기 위해 한국이 그동안 10억 달러 이상 냈다. 미국은 7억달러에 식량원조까지했다. 94년에 북한이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해서 제네바 합의 한 것이다. 그들을 믿을 수 없다. 북핵문제 해법은 세가지다.

1. 핵계획 포기 선언 2.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사찰 수용 3. 이후 포괄적 해결방안 마련.

Q: 그 이전엔 대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A: 대화가 돼야 말이지. 물론 안하는 것 보단, 하는 게 낫지.

펜타곤 -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Q: 영변 폭격 관련 기사가 나온 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A: 부시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바로 이 부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안을 넣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다고 하던데, 결국은 '추가적 조치' 라는 표현으로 가시화된 셈이다)

Q: 북한의 군사력을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냐?

A: 위협(threat)은 역량(capability)+의지(intent)다. 역량 측면에서야 그렇고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 의지가 문제다.

의회 - "Dr. Evil"

잭 니콜슨을 닮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좌역. 한반도 상황을 보는 시각이 대단히 시니컬했음. "김정일은 야비하게 뒤에서 총쏘고(back firing), 크게 오산(big miscalculation) 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 사건을 봐라. 김정일은 자기가 한 것인데도,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것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오다가, '그래, 우리가 했다. 그런데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밀

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거다' 하는 말로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사정이 이렇대도 남한 정부는 그저, '선사인 정책' 한다면서 'let's not upset Kimjungi' 하고 있다. '악마' 앞에 선생님 붙인 'Dr. evil' 과 다를 게 없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반미감정에 대해 한마디 하자. 성조기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서 그 어떤 미국인이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태평양사령부 - 'ready today, preparing for tomorrow'

미군 후방재배치 논란이 많은 걸로 안다. 하지만 재배치 문제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집결돼 있는 곳이 DMZ이지만 이곳 지키는 것이 미군의 사명이 아니다. 그건 한국군이 할 일이다. 전시에 적군이 내려왔을 때, 밀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얘이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작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놓고 국민적인 반미감정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 없는 곳으로 우리가 옮길 수밖에 없지.

4주간의 일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연수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그 보람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린 뒤 짐 벗어던지는 가벼움이라기보다는 더 큰 무거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평화적 해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그 같은 레토릭 이면에 있는 '실체' 는 과연 무엇일까? 북핵과 북미관계, 다자간 해결과 국제적 역학관계 같은 무거운 현안들... 우리는, 아니 그에 앞서 나는, 그 무거움의 실체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가. 굳이 국익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 이런저런 상념에 젖을 수 있었던 4주였다. 하지만 이 같은 상념도 사치라는 생각이 드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군. 돌아와 보니 여전히 어제의 대북송금이 톱뉴스인 걸 보니...

그저 생각 같아선 "hello Dr. Evil~" 하면서 뉴스포커스로 김정일씨를 초대하고 싶은데...

기자협회 축구대회

내년을 기약하며...



땀! 호각이 불었다. 골키퍼 배성준 선수의 이마에 땀이 흐른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침이 마른다. 아득고 달려가는 세계일보 선수. 땀! 다시 부는 긴 호각! 한숨이 나온다. 4강 진출 좌절. 하지만 잘 싸웠다. 출발은 좋았다. 지난해 우승팀답게 올해 처녀 출전한 아이뉴스24를 맞아 선전했다. 4:0 승리! 순조로운 출발로 시기도 좋았다. 게다가 바로 이어진 전통의 강호 KBS와 다크호스 스포츠

투데이의 결전에서 스포츠투데이가 후반에 넣은 2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의외의 선물이었다. 양측의 승자와 불게 될 우리 팀으로서 초반부터 KBS를 만나게 되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다. 경기를 분석한 결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KBS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공격형 시스템을 구사하는 스포츠투데이가 한결 수월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포츠투데이의 승리는 선수들의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촉매제로서 충분했다.

그러나 자신감이 너무 강했을까. 세계일보를 약체로 생각해 방심했기 때문일까. 일주일동안 우리 팀은 연습을 하지 않았다. 연습보다는 쉬는 게 낫다는 판단은 결국 실수였던 듯 하다. 세계일보 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밀고 나가는 시간보다 오히려 밀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 후담이지만 세계일보는 이번 대회를 위한 달 전부터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왔다고 한다. 연습 부족의 대가를 여실히 실감하는 순간이다. 그렇다고 우리 팀이 호락호락 무너지지는 않았다. 평소보다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모색해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무승부로 종료했고 승부차기에서 아깝게 패했다. 지난해 우승

감격을 맛 보았던 YTN 축구팀. 올해는 여기에서 끝이었다. 땀 맺힌 선수들의 얼굴에는 한순간 아쉬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수들의 축쳐진 어깨를 볼 수는 없었다. 활짝 웃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기에 자랑스러운, 하나하나가 모두 당당한 YTN의 대표들이기 때문이다. 새로 맞춘 흰색과 파란색 유니폼은 이제 1년 동안 옷장에 잠들게 될 테지만 내년 유니폼을 다시 꺼내 입을 때 YTN은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투지와 자신감으로 뚝뚝 뭉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형으로 선수들을 돌려하며 팀을 리드한 김종술 주장, 부동의 스트라이커로서 면모를 잃지 않은 최기훈 선수, 시종일관 최선을 다해 뚝 범희철 선수, 승부차기를 실축하긴 했지만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이경재 선수, 플레이 메이커로서 팀을 사실상 이끌어 준 권혁용 선수, 착실하게 경기에 뛰여준 김진석 선수, 퇴장을 무릅쓰고 수비의 좌장 역할을 한 이광래 선수, 공수 양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성도현 선수, 상대 공격수들을 꼭 묶어버린 멋진 수비 이성모 선수, 정제된 팀 플레이를 보여준 서영석 선수,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유종민 선수, 언제 어느 자리에 투입해도 든직한 서봉국 선수와 박정호 선수, 그리고 최고의 골키퍼 '올리버 칸' 배성준 선수...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YTN 파이팅!

정병화 (사회1부)

‘백안의 시원’ 도널이 본 YTN

영어 뉴스를 시작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지난 지난 3월중순부터 이곳 YTN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스티브 도널(Steve Donell)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신문방송학 중 방송 저널리즘으로 3월초부터 동아방송대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일로노이 주립대 석사과정 마지막 학기에 있습니다. 정치학을 부전공했습니다.

제 고향은 일리노이 펜도타라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한시간 반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참, 나이는 24살입니다.

▶ YTN에서 인턴십을 하게된 동기는 뭐죠?

— 남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학교 밖에서 인턴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명 방송사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가 미국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한국을 택했습니다. 특히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이 제 경험축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택했어.

▶ YTN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뭔가요?

— 물론 같이 일했던 YTN 식구들입니다. 기자로서의 능력, 맡은 분야에서의 전문성 등은 모든 면에서 제 본보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라크전 보도가 인상에 남습니다. 제 경력 중 가장 멋진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라크전 당시 24시간 뉴스전문채널에서 그것도 담당 부서인 국제부에서 일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

로 생생하게 보도하는 과정에 저도 한 부분이 었다는 것이 저의 공부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죠. 저의 첫 방송사 경험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라크전 보도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둘째로 정치부, 경제부 등 여러 부서를 돌면서 데스크를 비롯해 그 부서 기자들을 만난 것도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증권거래소 등지를 방문하고 실제 취재 현장을 접한 것은 미국에서는 갖기 힘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YTN 뉴스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 다시 말하지만 YTN 식구들의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동시에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방송하는 조화로운 능력도 인상이 남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전 발발 보도를 YTN이 미국의 뉴스전문 채널인 CNN이나 FOX뉴스보다 2분 먼저 보도했다는 게 이를 잘 증명하는 것입니다.

▶ 지금 얘기한 CNN이나 FOX 채널과 YTN을 비교한다면, YTN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뭐라고 봐요?

— FOX와 CNN은 아주 다릅니다. 폭스는 전적으로 미국 중심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도의 초점도 당연히 미국의 문제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FOX와 YTN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며 FOX로부터 YTN이 모델링해야 할 것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CNN이 오히려 많은 YTN 기자들이 추구하는 프로그램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인 프로그래밍과 보도의 집중화, 해외 특파원 보도의 우월성 등이겠죠. 제 생각에는 YTN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분야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라크전 당시 YTN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평했다고

생각하나요?

— 전쟁 당시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고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단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중기자들의 보도를 비롯해 외신들이 전하는 모든 소식들을 똑같이 보도하고 방송했습니다. 물론 갖고 넘어갈 것은 저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YTN 보도에 대해 100%의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쟁 기간 동안 제가 국제부에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정보가 침묵없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한 몫 했겠지만요. 저도 기사 선택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 스스로 차별성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보도의 대부분 공정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전과 전후 보도가 반미 감정이나 시위등에 맞춰진 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의 판단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제가 직접 본 YTN의 모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앞에서 반미 감정을 언급했는데,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반미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젊은 세대의 가장 위대한 자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젊은이들이 정치, 사회, 외교 분야에 그만큼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자신이 젊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이같은 감정에 앞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를 포함해 젊은 세대들이 지혜를 결여한 채 야망에 충만해 행동을 앞세운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구요. 물론 젊은 세대의 반미감정은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내에서도 이는 존재합니다.

시위와 같은 젊은 세대의 행동에서 지혜와 현실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젊은 세대의

감정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같은 감정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구요. 저 자신은 그들의 감정을 부인할 입장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젊은 세대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 끝으로 YTN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YTN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밖에 없어요. “저에게 이런 멋진 기회를 주시고 모두 호의를 갖고 저들 대해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진심어린 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시 YTN에서 영어 뉴스를 시작하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YTN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거예요!



게시관

■ 포상

- 특종상 동상** 오점곤(국제부), 김태진(정치부) '사스환자 인권공향 환송' 보도
특별상 이종국, 권영희(국제부), 김민(영상취재부) 이라크전 참전 취재

공로상 김신영(편성운영부) 홍보 SB, ID제작 기여
 장석문(편성운영부) 프로그램 타이틀음악 제작기여5. 7주

■ 퇴사

김혜진(편집3팀)5. 16주
 위세원(타워사업국)5. 27주
 이정애, 나보균, 구경순, 박주영, 이승언, 박희윤, 이길호(디지털뉴스팀)5. 31주
 김도현(문화사업팀)5. 31주

■ 회갑

이규일(제작기술부) 장인5. 1

■ 결혼

윤현(타워사업국)5. 17

■ 출산

전봉규(제작기술부) 딸4. 21

“거기 백지연의 정보특종팀이요?...”



지난 5월 26일, 월요일 방송이 나간 직후 사무실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거기 백지연 정보 특종팀이요? 나, 올해 여든의 독립유공자인데 말이요” 라며 시작된 시청자의 전화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아니 장 상씨는 그저 제가 부덕합니다. 한 마디 하면 되는거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말이야. 지난번에는 유시민이 나왔더구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없애지는 사람이요... “ 분명 향의전화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어라? 우리 방송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보셨네?야호!!’ 였다.

그것이 뼈아픈 질책이든, 격려든, 혹은 건의사항이든 시청자의 전화가 반가운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우리 팀의 한 작가가 ‘1’을 넘기지 못한 시청률로 비통에 빠졌었는데, 그때 마침 걸려 온 시청자의 문의전화로 단박에 감격의 얼굴이 된 일도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청자와 코드 맞추기??

요즘 세간의 유행어는 모두 정치권에서 나오는 듯 하다. 그 중에 ‘코드가 맞다, 안맞다’가 있는데 나의 고민, 아니 우리 제작팀 모두의 고민이 바로 ‘시청자와 코드 맞추기’가 아닐까 한다. 사실 제작초기에 누구를 주시청자 층으로 둘 것인가로 프로그램 성격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 프로그램 탄생 배경 중 하나가 여성층을 YTN시청자로 끌어들이자 였기 때문에 생활정보와 트렌드, 대중문화에 적지 않은 비중을 뒀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여성 시청자들은 여전히 지상과 방송의 연예토크쇼에 빠져있었고, 많은 남성 시청자들은 YTN의 변신에 낯설어 하는 듯 했다. (초기 시청률과 YTN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한

제작진의 판단임) 결국, 방송 시작 한 달여만에 본격 시사정보프로그램으로 성격을 확고히 하고, 요일별 코너 구성을 새롭게 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시사, 목요일 건강, 금요일 여행 문화 정보로 테마를 정하고, 시사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기자들의 시각과 발빠른 취재력을 무기로 삼아, ‘기획 취재’를 강화하는 한편, 6미터 카메라의 현장성과 밀착성을 살린 ‘뉴스다큐’ 형식의 새로운 코너들을 시도했다. 또한 건강과 여행문화정보에서도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시청자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백지연의 정보특종>에는 특종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프로그램 제작에 온 힘을 기울여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 있으랴. 신실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홍보였다. 더구나 케이블 방송이 갖는 한계를 뛰어 넘을 막강한 홍보가 필요했는데... 방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YTN, <백지연의 정보특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한마디로 특종을 잡으면 된다는 애긴데... 하지만 특종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그때부터 전쟁이었다. 아이템 수집과 선별에 전 팀이 매달렸고, 섭외와 취재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통로를 동원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건의 ‘특종’을 날릴 수 있었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언론과 인터뷰했고, 자신의 집을 공개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을 만나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기 전,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지난 대선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민석 전 의원을 만나 ‘귀가하고 싶은 가출소년의 심정’을 들었고, 이는 김민석 복당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또 황장엽 전 북한 당비서의 방미희망 친필서한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북한 중앙방송이 촬영한 북한 조선화 화가들의 모습이 단독입수 공개되면서 그동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 김기만 화백이 생존해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같은 방송내용들은 당시 각 일간지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는데, 자화자찬같이 들리겠지만, 이런 특종이 결코 ‘굴러 들어온 복’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싶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2월 말, 나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또 방송일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뉴스전문채널 YTN에서 정보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낯설지만, 한편으론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 내심 기대가 됐다.

그런데 어떤 인연인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첫 방송이 나가고,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과연 <백지연의 정보특종>이 나처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아니 최소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한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몇 건의 특종이 우리 프로그램을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시간을 기다리고, 보게 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뉴스전문 채널에서의 새로운 실험이기도 한 <백지연의 정보특종>,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 선 주 (백지연의 정보특종 작가)

프로그램 탐방· 낮 2시 '뉴스의 현장'

YTN

'겉핥기'와 '파헤치기'의 배합



정찬배 앵커(왼쪽)와 임장혁 기자

겉핥기와 파헤치기... '뉴스의 현장'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기사와 정보를 골라 어떤 것은 '겉개', '자세히' 분석하고, 어떤 것들은 간단히 "이런 소식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간추린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며 뉴스의 현장은 대한민국의 심장이 가장 활발하게 고동치는 오후 2시부터 54분동안 달려간다. 54분... 모든 매체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앵커 혼자 쉬지 않고 진행하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그렇게 긴 시간을 뿔로 다 메꾸나'라는 사내 동료들의 걱정도 있지만 '거리'는 많다.

오히려 54분의 한 틈바구니에 끼려는 기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된 기사들이 한꺼번에 '킬(KILL: 뉴스 진행도중 시간 문제로 다음 기사들이 불방되는 것)'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뉴스의 현장 전반부는 오후 2시까지의 국내외 큰 뉴스들이 장식한다. 주로 기자의 중계 연결이나 전화 방송, 리포트로 이뤄진다. 정부의 중요 정책 발표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의 무게 있는 발언들은 편집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못할 정도의 위기감"을 토로했을 때는 발언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여과없이, 통째로 내보내기도 했다. 말의 배경과 속내를 되도록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후 '분석하기'가 이어진다. 국가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전문가나 당사자, 정부 관계자, 정치인들을 긴급히 섭외해 스튜디오 출연이나 중계차 연결로 대담을 나눈다. 이미 새정부 장·차관들이 대부분 출연해 국정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불러낼 계획이다. 신당과 관련해 민주당내 구주류와 신주류의 대표 인사들을 불러 물어

봤고, 한나라당 대표 경선 주자들도 모두 출연했다.

이해 당사자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양쪽을 동시에 출연시켜 뜨거운 즉석 토론도 벌인다. NEIS와 관련해 전교조와 교육부가 찬반 논쟁을 벌였고, 공무원 노조 문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노조 관계자가 서로의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격한 말싸움이 되거나 않을까 지레 조바심도 나지만 감정을 자제하고 성숙한 토론을 벌이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머쓱해 한 적도 많다.

무겁고 딱딱한 내용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화제의 인물이나 저명인사, 쇼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인기 연예인들도 나온다. 조영남, 윤석화, 심형래, 신형원 씨가 등장했고 최근 복귀 앨범을 낸 윤항기, 최현 씨 등도 신고식을 했다. '얼굴 없었던' 가수 김범수가 모습을 공개했고, 앙드레김은 패션쇼, 드라마 올인의 모델 차민수씨는 도박을 논했다. 여자 권투 챔피언, 대형 은행 총각 지점장, 하버드대에 입학한 국내 고등학생, 경마장의 여성 기사 등 평범함에서 조금 비껴간 이웃들도 나와 희망을 얘기했다.

인기 절정의 소녀 가수 보아에 이어 여성 4인조 그룹 빅마마도 출연했다. 모든 출연은 생방송으로 이뤄진다. 다른 방송들처럼 사전 녹화가 전혀 없다. 뉴스 진행 중에 도착한 출연자들이 스튜디오 밖에 대기

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 입장한다. 그리고 다시 뉴스 진행도중 스튜디오에서 사라진다. 때문에 정작 담당 PD는 출연자들의 얼굴을 직접 볼 기회가 없다. 앵커 역시 방송에서 말고는 출연자와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눈다. 당연히, 방송에서 주고 받을 질문과 답변은 미리 조율할 수 없다. 출연자가 말 실수 했다고 NG를 외칠 수도 없다. 연출할 수 없고, 각색할 수 없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대담 방식이 단점이자 장점이다.

출연과 대담을 마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방송 타기만 기다리는 기사들이 아직 줄을 서 있다. 사건·사고 등 그밖의 주요 기사들을 앵커가 화면과 함께 설명하고, 보도국내 다른 앵커가 그사이 새로 들어온 소식들을 모아 간추린다. 국제부 기사는 '지금 이 시각'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리한다. 장 마감을 앞둔 주식 동향을 점검하고 날씨는 어떤지도 알아보면 뉴스의 현장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54분동안 보도되는 기사들은 평균 50건 정도다. 뉴스의 현장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아니 준비할 시간이 없다. 압박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들의 순서만 대충 배열해 봤다 뿐이지, 방송 진행은 대개가 '즉석'이고 '임기응변'이다. 한시간 가까이를 설세 없이 '에드립'으로 떠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뉴스를 준비할 시간...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시간 부족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포장되지 않은, 포장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다행이다. '뉴스의 현장'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 정의사회 구현이나 여론주도가 아니다. 영향력도 아니고 시청률은 더더욱 아니다. 어느 날 2시, 뉴스의 현장을 본 사람들에게 그 날 남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작지만 유용한 생활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임장혁 (편집2팀)



5월 26일 가수 보아 출연